

# 절대복음의 망대를 세운 데살로니가의 70인 제자들 -복음으로 여는 데살로니가전서- 창세기 45:3-5,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정윤돈 목사님

\* **창45:3-5**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살전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가장 의미있고, 가치있는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저희를 선택하고 예정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어리석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6 가지, 12 가지 속에 있는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냄으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어서, 강단말씀의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닦쳐오는 문제들에 대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교단, 한국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고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레마와 미션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단에서만 하는 말이 있다. 그것은 ‘예수 안에 다 있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그리스도가 해답이고 결론이다’ 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극악무도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이 났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다. 지금 문제와 갈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배 끝나고 100 억씩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 문제 해결될 것이다. 1년 후에 주겠다고 해도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복락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고 결론이며 끝이다.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사람이 성공자이다. 대단한 사람이 되면 성공자인가.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 성공자이다. 우리는 성공하고 가는 것이지, 성공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잘못된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변화가 오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정 속에서 무엇이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가. 모든 염려, 근심을 주께 맡기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주께 모두 맡기고 말씀, 언약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를 바란다. 거듭나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줄을 믿기를 바란다.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를 바란다. 그 기준은 여러분이 감사, 기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면 다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문제가 아무 것도 없어, 내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주권자,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 그리고 그것 안 받아도 좋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으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길이며 진리를 아는 것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엄청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낸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야기를 들었는데 형들에게 팔렸다. 그러나 이것을 잊지 않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가 어떻게 감옥에 가’ 말 안했을 것 같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길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절대계획을 가지고 계시길 줄 믿습니다. 나는 이 노예, 포로의 자리에서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만남을 주셔서 총리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 램넌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은혜를 받으면 된다. 우리는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다. 복음을 받으면 영적으로 크다. 나도 모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은혜롭게 받기를 바란다. 오늘 나눌 데살로니가의 70인 제자들은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래서 야손과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70인 제자들은 새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결론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그 안에 다 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쩌면 새가족들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라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과 신앙생활의 결론까지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류목사님께서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절에서 18 절 말씀이 다락방 복음훈련의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말씀이 체질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절대제자의 미션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말씀을 성취한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다.

### 1.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칭찬받는 믿음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다.

1)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3 가지의 절대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그들은 70인 제자의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 절을 보겠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세 가지 절대 믿음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이다. 사도 바울이 감동될 정도로 이 믿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

2) 또한 데살로니가교회의 70인 제자들은 살아서 역동하는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 절을 보겠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들의 복음의 역사는 말로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가질 만큼 증거를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 천 제자, 대표적인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감사광고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었는데 증거가 계속 나타나야 한다. 그래야지 중인이 될 수 있다. 방법은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놓치지 말라. 문제가 있어도 그 뒤에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파수당대를 70 현장에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3)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겠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4)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마가다라방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였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을 보겠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즉, 마가다라방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복음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회피하지 않았던 것이다. 교회에는 믿음 좋은 성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보다 믿음 좋은 성도를 본받아야 한다.

5)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바울에게 위로를 줄 만큼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파송한 디모데를 통하여 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도 오히려 목회자가 여러분을 보고 위로를 받을 정도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더 크고 새롭고 중요한 미션을 주었다.

**2.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준 새로운 미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오직복음을 받으면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는 예수를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상태이지만 성장한 상태가 아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제는 성장하고 완전한 복음을 가지는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죽더라도 이 복음 전해야지.’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항상 어린 아이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새가족들은 은혜로 결론을 내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영적 성장은 한 번 결론내면 100년 믿은 사람보다 더 결론낼 수 있다. 내가 결론내면 한 달 믿고도 더 잘 믿을 수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미션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1) 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가족인데 사도 바울은 결론까지 말하고 있다.

2)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3) 4장 5절에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4) 4장 9절에 “형제를 사랑”하고

5) 4장 11절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구체적인 삶의 미션을 주고 있다.

6) 또한 가장 핵심적인 미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미션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3가지가 전도제자들이 항상 도전해야 할 3가지의 절대미션

이다. 이것이 되었을 때 사탄과 흑암의 역사는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직 나는 복음을 깨달은 것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고백하면 사탄이 ‘저건 못 견디겠네.’ 하고 가 버린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7) 다음으로 주신 미션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거나 그 때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8절을 교독하겠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은 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즉, 믿음과 사랑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리는 것이다. ② 복음과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결론을 내려서 구원의 소망의 완전한 투구를 쓰는 것이다. 이 미션의 말씀을 주신 후에 5장 9절에서는 다시 한 번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함께 보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전도할 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결론으로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마치고자 한다.

1. Covenant(키버넌트), 언약과 복음이다. 완전복음으로 결론난 절대제자는 항상 기뻐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절대제자들의 절대복음이다.

2. Vision, 비전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된 비전은 237 나라, 5천 종족의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제자의 미션을 붙잡도록 참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드림), 꿈이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절대제자가 되기 위하여 24시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후대와 후대의 후대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문제 앞에서 조금만 강단말씀에 집중해도 W.I.O(위드, 임피누엘, 윈니스)와 OURS(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보여 주실 것이다.

5. Practice(프랙티스), 지속적인 실천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1천만 제자,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를 위해 나의 현장에 세울 70 땅대를 위하여 도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의 문도 열어주실 것이다.

끝으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한 절대제자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램넌트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하시고 데살로니가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좋은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이상의 믿음을 가져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